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한총련 1만 일꾼의 새로운 결심으로 완전히 뿌리뽑자!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양자료 -

발신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수신 : 한총련 1만 일꾼

1. 성폭력이란?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매개로 행하는 폭력'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폭력'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합니다.

성폭력이란 말 그대로 '성(性)'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성적 자율권 침해문제,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무시하고 남의 성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을 성폭력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으스스한 공간에서는 물론이고 강의실, 학생회실, 동아리방, M.T. 장소,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폭력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정의하는 이유는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책임성있게 성폭력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 성폭력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①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을 들이댄다면, 얼마큼 만졌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식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성폭력이 판단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강그리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② 성폭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규정지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유형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지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성폭력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폭력으로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졌을 때, 성폭력은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 혹은 '심각한(심한) 성폭력'과 '경미한 성폭력'으로 양분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으로 느끼는가의 여부가 되어야지,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어떠했던가만을 잣대로 하여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지어서는 안됩니다.

덧붙이자면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피해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인 '강간범=죽일 놈'의 도식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이고도 무수한 성폭력들을 성폭력 때문에 있어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성폭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킵니다.

2. 성폭력에 대한 10가지 잘못된 인식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미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창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잘못된 인식들의 부작용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히기에 성폭력에 대한 가치 잘못된 인식들을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내어야 할 것입니다.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성폭력을 대하게 될 때 '그게 무슨 성폭력이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술자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들은 '단지 여지리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2) 강간은 조금 격렬한 성관계일 뿐이다?

바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순결을 잃었다는 식의 시선으로 되어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3)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과도하게 했나보지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성폭력을 목인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성폭력은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손길에 여자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어쨌 '좋아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단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그 여자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이 정도 만져도 되는 몸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4) 나에게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특정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 성폭력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에게 '범죄자'라고 인식하기 보다 '그럴수도 있지'라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남성의 성욕이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지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여자가 똑바로 했으면 성폭력을 당했겠어?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피해여성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쉬운 예로, 밤늦은 시각 어두운 공원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 시각, 그곳에 있었느냐?" "왜 돈을 가지고 다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말, 행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여성의 옷차림이나 언행이 아니라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 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7)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8)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폭력을....미쳤겠지...아님 돌았거나?

흔히 성폭력 가해자를 괴한이거나 정신이상자, 질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놈', '그런 놈들은 크게 혼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성폭력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다는 인식은 결국 주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없습니다. 도리어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9)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나?”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 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을 잘 생각해봅시다.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꼭 짚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10) 애인이나 부부간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애인이나 부부라는 관계가 상대방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기가 되어 원하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동의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나 여성과 남성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데이트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학생운동사회 내에서의 성폭력 사례

▲ 모 대학 선거에서 정후보였던 가해자가 선거운동으로 피곤한 여자일꾼에게 호감을 보이며 학생회실로 저러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일꾼이 학생회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일꾼을 깨워 "뽀뽀 한번만 하자"고 해 여자일꾼은 안된다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가해자가 연행되어 구속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해자에 연관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듣게 되었고, 1년간은 가해자를 보아도 외면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가해자)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해자가 저지른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알게되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가해자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회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100인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기간 성폭력 사실들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으며, 폭로된 이후 숨겨져있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100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 모 대학의 핵심일꾼은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일꾼을 학생회 직책 제안의 명목으로 만나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으로 데려가 더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에서는 남자일꾼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아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도 이러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하였 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그 여학생의 생일날에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 술취한 여학생을 자신이 데려다준다고 했고, 아침에 술이 언제 학생은 자신의 옷 이 다 벗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전반 과정에서 여학생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 믿음을 못 가지고 학생회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다가 결국 학생회 활동을 접었

습니다.

▲ 모 대학 생활방에 자고 있던 남자일꾼이 옆에 자고 있던 여학생의 가슴을 더듬었고, 이에 놀란 여학생은 즉각 대처했으나 남자일꾼은 모른 척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신고했고, 총여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해, 총학생회 일꾼들 속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일꾼이 속한 단위에 총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들어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토론 및 비판사업을 진행했으며, 남자일꾼은 성폭력 사실과 처음에 발뺌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여 사과문을 썼습니다. 일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가해남학생이 일꾼들 앞에서 직접 자기비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 여학생회 일꾼이 생활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길을 잠깐 느꼈고 순간 온몸이 굳는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매우 찜찜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잤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꿈이 아니라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해 총여학생회장과 자신의 명의로 생활방에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일꾼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생활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 거점 농성투쟁을 진행하던 중 남자일꾼이 자고 있던 여자일꾼의 몸을 더듬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한 대학의 총여학생회에 신고를 하였고, 총여학생회는 해당 단위에 제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군대로 도망가 결국 성폭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 모 대학에서 생활방 성폭력을 저질렀던 남자일꾼이 단위 학생회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성폭력을 저질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기하였고, 해당 단위는 그 남자일꾼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것까지 성폭력 사례들 중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발생의 현황에서 극히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고 유아무야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실은 것은 단순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얘기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통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이 인식해야겠습니다.

4.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심각성

앞서 보았듯이 학생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운동사회 또한 일반사회인들이 갖는 편견과 자본주의적 기무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묵인되고 조장되어 온만큼 학생운동사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아야할 것은 학생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운동사회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성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첫째,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한 채 성폭력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일정하게 외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사람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꾼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도 대중 비판하고 넘어가는 식의 기풍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해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것과 똑같이, 학생운동사회 내에서도 성폭력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성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온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해결원칙 없이 성폭력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하다보니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원칙 없이 성폭력을 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꾼으로서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동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연애나 성인식,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 '알아서 잘 하겠거니와'라는 식으로 대하면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동의 경험이 많고 신앙받은 일꾼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살마 그랬겠느냐'리거나 '동지'애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턱대고 믿는 식으로 해결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풍들은 결국 성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또다시 2차 3차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흔히들 얘기하는 ‘운동의 도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직의 보위’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일꾼 내 성폭력을 대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꾼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이 학생운동 외부에 알려지면 운동사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얘기를 하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입밖에 꺼내지 않게 입단속을 시키는 식으로 성폭력을 대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일반사회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하게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의 도덕성은 잘못된 문제를 덮어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풍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피해를 당한 이는 운동과 조직,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을 안고 운동사회를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를 한 이는 운동사회 내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굳건히 버티고 있게 되고, 심지어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결국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일꾼들 속에 심어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된 것입니다.

5.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폭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남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디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진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성폭력은 제대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여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있으며, 피해자에 따라 이런 증상들을 쉽게 극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여 성들이 장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만큼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특히 학생운동사회 내에서는 성폭력의 피해 경험 자체부터 어느 성폭력보다 더욱 큰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줍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함께 활동하면서 원래 알고 있고 운동가로서 동지로서 믿었던 일꾼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며, 그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거의 경악스러운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증폭됩니다.

다른 일꾼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일꾼들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행실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게 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애로써 가해자를 바래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포장되어 가해자에게 제대로 비판이 가해지지 않고, ‘조직의 보위’ 운운하며 성폭력 사실에 대해 쉬쉬하거나, 가해자가 대충 반성해놓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피해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운동과 조직에 대한 믿음조차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말 어렵게 꺼내놓은 피해자에 대해 조직을 배신하고 학생운동사회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더이상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머물러야하는(심지어는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계속할) 자기 근거를 완전히 상실케 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학생운동을 접고 휴학하거나 급하게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 것은 이를 반증합니다.

6.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요구성

1)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굳건하게 자리잡아 오면서 모든 여성들의 삶이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의 성(性) 또한 제대로 인식되거나 대접받지 못한 채 남성에게 종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보쌈’이란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남치나 강간이 정당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나면서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더더욱 강하게 작용하

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성(性) 또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상업 문화에 이용되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최근에는 남성의 성까지도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간에서 성은 따로이 떼어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서 성만을 따로이 떼어내 상품화함으로써 성의 인간적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인간은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되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결합되어 성과 인간의 몸(특히 여성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들도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운동사회도 이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성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인간의 성과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2) 우리 학생회는 사람의 자주성을 구현하려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회는 학우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학우들이 주인공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생활이고 활동입니다.

그런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는 일꾼들이 사람의 자주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되려 한 사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철저히 짓밟는 작태를 저질러서야 될 일입니까?

성폭력은 앞서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그것이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상관없이 평소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몸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인식이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폭력은,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사람과 조직, 운동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행동, 한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회 안에서 이같은 성폭력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이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중지부를 찍읍시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운동은 그 진리를 망각한 채 속부터 썩어먹어들어가 결국 한 사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발현시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말뿐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급하게, 그러나 이제까지 있어왔던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아주 꼼꼼하게 반성하고 비판하는 과정으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해결해갑시다!!

3) 공격적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총련 1만 일꾼들은 낡고 구태의연한 것, 새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혁신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이 한 몸 부서져라 피땀을 흘려가며 공격적 혁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한총련 1만 일꾼들의 공격적 혁신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민중중심·학우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혁신을 다그쳐야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그야말로 낡고 구태의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성폭력이 더이상 한총련 1만 일꾼들 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피땀 흘려가며 성폭력과의 투쟁을 해나갑시다. 2002년,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의 원년으로 만들어냅시다!!

7. 일꾼내 성폭력, 이렇게 근절하자.

1) 개인적 수칙

①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자신의 성인식을 항상 점검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당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평소에도 많은 이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 관계를 나눕시다. 이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성들이 남녀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농담을하거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성경험을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성적 행동은 상대의 진정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항상 상기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성적인 언동에 대해 적극 응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이를 거부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잠전히 있거나 별 저항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동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관한 지침을 정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평소 자신의 성적 의도와 한계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혹은 요구가 있으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항의합니다.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고,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껴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면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직접적인 거부 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 특히 여성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남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성 / 여성 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성 / 당신의 행동과 교우관계, 생활 등을 지배하려는 남성 / 당신이나 다른 남성들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 /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술을 마셨을 때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성

③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성을 표현하고 행동함에 있어 남성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것을,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에 의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평소애 '여자가...' '남자가...'라는 식으로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체 속에서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성역할을 고정화시켜 분담하는 식의 문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갑시다.
- 예를 들어, 학생회 사업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여장 미인대회나 술자리에서 여학생 끼워맞히기 혹은 음담패설 등, 학생회 사업 속에서 사회자의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 모교지에서 남자가 할 일 / 여자가 할 일 구분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회 역할 구성에 대한 예로, '우리 지역은 아직 보수적이니까라는 이유로 학생회장에서 여학생을 배제시킨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일 잘 못하니까'라는 이유로 선전일을 대부분 여학생에게 떠넘긴다거나 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바꿔가야할 것입니다.

2) 조직적인 해결

①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이는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난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대하고 해결하는 전반기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성폭력을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 이 원칙을 트른히 쥐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2차 3차의 성폭력 가해를 당하고 결국 운동사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원칙을 트른히 쥐고 있지 못하면, 피해자에게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성폭력을 단순히 '사건'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해지는 과정으로 되며, 이는 또 다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고통의 무게를 덜지 못하고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성폭력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한 폭력으로 느꼈던 피해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말을 믿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이 상황에서 왜 그랬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캐묻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믿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며, 그렇게 캐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후유증을 제대로 알고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해야합니다.

- 피해자를 총화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피해자를 만나서 총화하려 들면, 피해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두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총화자 혹은 대리인을 세워 문제를 해결합니다.

-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을만한 모든 상황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경위를 한번 이상 물어본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게 한다든지,

-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폭력 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최대한 피해자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② 성폭력을 조직적인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성폭력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두사람 간의 문제로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 어찌 개인적인 문제로만 얘기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해결의 과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올바른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모든 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성인식을 비판하면서 성폭력을 조직적인 문제로 해결해가야 합니다.

- 성폭력에 대해 전 일꾼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성폭력을 예방적 차원에서 근절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급하게 제기되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먼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전반에 대해서 전 일꾼이 학습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교양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성인식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꾼들의 성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성폭력이 일어날만한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예> 집자리(생활방 등)의 남녀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④ 이런 과정으로 해결해봅시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위 ①, ②, ③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아래와 같이 해결해봅시다. 대학별 상황과 인식정도가 다르기에 모두 똑같은 과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결해나가야할 것입니다.

-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여학생회로 총화하고,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해결해나갑니다.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주체를 세우고,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이나 전여대협, 지역여대협과 함께 해결합니다.)

-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총화 주체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만나는 사람의 관점과 자세,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만나야할 것입니다.

-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총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와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합니다.

- 가해자를 만나 가해자에 대한 비판사업 및 총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올바른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가해자 면담사업은 자기 총화하고, 자아비판 및 상호비판을 진행하며,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면담사업 전반 기간 동안 성폭력 및 성인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총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학생회 전 단위가 성폭력과 성인식에 대한 전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 전 일꾼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성폭력 해결의 전반 과정을 공유 및 평가하고, 가해자가 일꾼들 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를 풀어온 전반의 과정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면서 학우들에게 자아비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총화하고 세워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 이후 계속적으로 가해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학습(혹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총화사업을 진행합니다.